

① 世界景氣 交易鈍化로 好轉展望 弱해

李 在 雄

〈成均館大學校教授·經博〉

I

今年 들어서 急速하게 둔화되었던 세계경기는 최근에 美國의 경기가 前半期에 비해서 다소 회복되므로 成長率의 下落勢는 어느 정도 진정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 및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신흥공업국 및 기타 開發國들 역시 금년에는 성장률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전체로 성장률은 작년도의 4.0%의 절반 수준을 조금 上廻할 정도에 그칠 듯하다.

금년 1/4 분기 중에 0.3% (年率)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미국경제는 2/4 분기에는 1.9%로 그리고 3/4 분기에는 잠정추계 3.3%를 보여서 성장률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더구나 3~4個月 후의 경기를 예고해 주는 先行指標도 최근에 계속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므로 앞으로 미국경기의 회복세는 당분간 加速되어서 來년에는 성장률이 3.0% 가량 될 전향으로 금년의 약 2.5% 수준보다는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미국경기의 회복으로今年 들어서 對美 수출이 크게 늘어난데 힘입어 日本경제도 1/4 분기의 0.8% (年率)의 낮은 성장에서 2/4 분기에는 7.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금년 전체로도 약 4.4%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며 EC 제국들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의 성장세가 작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으로써 대부분의 開發國은 여전히 침체된 경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對美수출 증가에 힘입어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했던 한국을 포함한 臺灣, 홍콩, 싱가포르 등 亞洲新興工業國의 경우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미약할 뿐 아니라 최근 미국 등지의 保護무역 強化로 輸出이 많은 애로를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크게 저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경제성장률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크게 好轉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들은 모두 對美수출 의존도가 높으며 보호무역주의의 견제와 後發開發國의 추격 등 격심한 국제경쟁 속에서 成長과 정체의 기로에 처해 있다. 물론 先進國 경제가 來년에 다소 회복된다면 이들 신흥공업국들의 경제도 금년보다는 나아지겠지만 各國의 국내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과 政治的不安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당분간 회복될 전망은 상당히 不透明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各國은 내년에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失業문제가 심각한 社會問題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先進國의 고용사정은 미국과 日本을 제외하고는 전혀 改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부문의 고용침체에도 不拘하고 서어비스산업을 비롯한 非製造業분야에서 고용이 증대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美달러貨가 弱勢

論壇

로 돌아섬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도 擴大추세가 멈추며 국내고용도 개선된다면 현재 失業率 7.2%는 來年에 다소 낮은 6.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西歐제국의 경우에는 미약한 경기회복세로 인해서 전후 「베이비·붐」 시기에 人口증가로 크게 늘어난 신규노동人口 및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생겨난 대량 失業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平均 失業率은 약 12%에 육박하고 있으나 來年에도 고용사정이 개선될 전망은 희박하다. 이러한 고용사정의 惡化는 서구제국의 산업구조 조정이 끝나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세계 경기동향 및 전망은 세계 交易量의 變動 전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작년에 세계경기의 빠른 回復勢에 힘입어서 9% 이상 증가했던 세계 교역량이 올해에는 경기不振을 반영해서 전반적인 수입수요의 감퇴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外債절감을 위한

開途國들의 수입억제 등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4~5%의 교역량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세계 교역에서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美國과 日本의 輸入量 증가세가 금년 들어서 크게 둔화되었다. 작년의 경우 月平均 약 24%씩 증가했던 미국의 수입량 증가세가 금년 上半期에는 前年同期對比로 약 11%밖에 늘어나지 않음으로써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도 작년에는 10.8%나 증가했던 수입량이 금년에는 오히려 약 7%가량 감소함으로써 세계 교역둔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先進國의 보호무역주의 추세 역시 세계 교역 신장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 온 美國조차 현재 300여개에 달하는 각종 무역규제 法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무역규제 조치로 인한 각국간의 무역마찰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을 추구해 온 대부분의 開途國과 특히 신흥공업국 등도 수출부진을 타개하는 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한편 그동안 계속 安定勢를 보여 온 先進國의 物價는 각국에서 건축정책을 견지하고 또 原油를 비롯한 主要 原資材 가격의 安定 등으로 來年에도 安定基調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980~82년 기간 중 年平均 12%이상의 高物價에 시달려 온 西歐제국의 경우에도 그동안 財政적자 축소를 비롯해서 「인플레이」억제에 초점을 맞춘 一貫性 있는 건축정책을 추진해왔고 또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데 힘입어서 지난해

東南亞 NICs 輸出實績 (85.1~9月)

<表-1>

國別	區分	金額(百萬달러)	前年同期比(%)
대만		22,859	-0.6
홍콩		12,201	-6.4
		(22,296)	(8.7)
싱가포르		17,101	-5.8
한국		20,742	-1.1

註: ()는 再輸出 포함.

資料: EPB, 月間經濟動向, 1985.11

世界經濟展望

<表-2>

(單位: %)

區分	年	1980~82	1983	1984	1985	1986
成長率	世界	1.3	2.2	4.0	2.9	2.8
	선진국	1.0	2.4	4.9	2.8	2.5
	개도국	1.5	-0.1	2.8	2.8	3.9
失業率	선진국	7.5	9.5	9.1	9.1	9.2
	EC 제국	8.5	11.2	11.7	12.0	12.2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85.10

世界交易量展望

<表-3>

(單位: 年平均增加率, %)

區分	年	1980~82	1983	1984	1985	1986
총수입량		0.7	1.1	9.1	5.2	4.5
연료		-8.8	0.0	-1.2	1.6	2.5
원자재		3.2	-1.1	7.9	6.6	4.9
공산품		2.4	2.2	12.8	5.8	4.9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85.7

에 이미 80년대 초에 비하면 약 5%「포인트」나 낮아졌으며 금년 중에도 1%포인트 정도 더 下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9月下旬 이후 선진 5個國이 달러時勢를 낮추기로 협의한 이후 외환시장에 공동개입함으로써 美國의 인플레이는 來年에 다소 上昇壓力이 생길 전망이다. 또한 지난 10月 IMF/IBRD 서울총회에서도 개도국의 外債문제 해결을 위해 各國은 지나친 긴축정책보다 오히려 장기적인 成長기반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方向으로 정책전환이 모색되었던 바 來年の 物價는 작년이나 今年에 비해서는 다소 上昇壓力이 커질 수도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赤字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던 先進國들의 경우 올해에는 日本과 EC제국들이 계속 큰 幅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미국의 막대한 赤字에도 不拘하고 今年의 國際收支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9月下旬 이후 달러시세가 日本엔貨 및 기타 主要 선진국 통화들에 비해 크게 下落함으로써 來년에는 선진국간의 赤字幅 및 不均衡은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開途國 중에서 산유국들은 油價의 약세 및 석유소비 감소에 의한 石油판매 收入의 축소로 적자폭이 약간 擴大될 것으로 보인다. 非産油開途國의 경우에는 先進國의 미약한 경기회복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감소로 개도국 전체로는 국제수지赤字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II

그동안 국제수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어왔으며 보호무역주의 및 開途國 外債문제 등을 통해서 국제통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온 金利 및 換率변동은 최근 달러가 弱勢로 돌아서고 이를 위한 主要 선진국들의 협조개입 및 金利겨차 축소 등으로 상당한 변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下落勢를 보여온 미국의 主要 金利는 그동안 미국경기회복을 부추기며 또한 달러貨의 강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美聯邦준비은행이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

하고 통화 증가율을 목표 증가율 범위 이상으로 높인 결과였다. 이에 비하면 지난 9月下旬 이후 日本, 西獨, 英國, 프랑스 등은 달러貨 下落을 유도하기 위해서 金利도 美國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추지 않음으로써 각국간의 金利겨차를 어느정도 조정해왔다. 따라서 來年에도 美國 金利는 上昇될 전망은 별로 없으며 그동안 美國의 高金利도 여타 선진국 金利와 상당한 격차를 보여왔던 것도 비교적 축소되는 方向으로 조정돼 달러貨의 弱勢와 특히 日本엔貨의 강세유지 등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換率동향을 보면 그동안 강세를 지속해온 달러貨가 금년들어서 3월과 7월에 下落勢를 보인 후 9月下旬부터 다시 급격한 下落勢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주요 통화의 換率추이를 보면 엔貨는 9月中旬경에 美달러當 242 엔에서 11월中旬경에는 204 엔으로 下落했으며 西獨마르크貨, 프랑貨 및 英國파운드貨 등에 대해서도 평균 4~5%가량 下落했다.

최근의 달러貨 下落현상은 지난 9月22日 선진 5個國의 財務相들이 뉴욕에서 會議를 갖고 달러貨의 下落을 유도함으로써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美國內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各國이 외환시장에 共同介入하고 金利정책, 수요관리정책에 共同보조를 취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달러貨는 各國의 外換市場介入 정도와 수요관리정책, 金利정책의 진행여부에 따라 크게 左右될 것이지만 今年에 미국의 경상수지赤字가 작년보다 확대되어 약 1,3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美달러貨의 가치가 아직도 高平價되어 있으므로 무역마찰을 크게 빚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今年 末까지 下落이 불가피하며 來年에도 弱勢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마찰이 가장 심각한 美國과 日本間의 換率조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美달러當 200엔線까지는 무난히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통화제도의 변화에는 역시 상당한 不安과 不確實性 要因이 內包되어 있다. 우선 현재 달러가치 下落은 단지 외환시장에 介入함으로써 各國의 달러放出을 늘리는 결과이며

그동안에 근본적으로 美國 金利上昇 요인이었던 財政赤字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결국 달러通貨 增加를 초래해서 美國의 인플레이션을 조만간 악화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럴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美聯邦준비은행이 통화긴축을 실시한다면 다시 金利를 올리고 그 결과 달러 強勢와 國際收支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美國이 財政赤字를 줄이든지 日本, 西獨 등이 크게 政府支出을 擴大하고 金利를 높이든지 해야 하겠으나 이것은 모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또한 日本이나 여타 先進國들도 달러貨를 지나치게 弱勢로 만들 경우 對美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될 우려조차 있으므로 앞으로 어느 정도 이같은 換率조정이 이루어 질지는 확실치 않다.

來年중 세계경제에 다소 밝은 전망을 주는 요인으로는 원유 및 주요 원자재 가격의 下落전망을 들 수 있다.

近來에 不安定한 움직임을 보여온 油價는 다시 下落勢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OPEC 회원국 및 非會員산유국들이 계속되는 原油 공급과잉에 따라서 공식·비공식적으로 할인판매를 擴大해왔으며 會員國들도 산유량쿼터를 지키지 않고 판매 擴大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原油價格 유지를 위해서 生産量 조절자(Swing Producer)로서 역할을 해온 사우디 아라비아조차 增産決定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할인판매를 시작함으로써 油價下落을 부채질했다. 이런 상황 아래서 10월 3일 비엔나에서 열린 OPEC 임시총회는 회원국의 이해대립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폐막됨으로써 油價는 앞으로 한동안 표류할 전망이다. 이러한 근거로서는 첫째, 금년 들어서 경기부진 및 에너지절약기술의 발달 등으로 소비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둘째, 油價引下 기대로 先進제국이 계속 在庫보충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셋째, 최근에는 이라크의 송유관 완공으로 석유공급능력이 더욱 增大되었으며 넷째, 이라크·에콰도르를 비롯한 대부분의 會員國들이 財政難을 겪고 있어 석유판매수

입의 증대를 위해서 초과생산과 할인판매 方式을 계속 擴大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타 원자재 가격 역시 지난 2/4 분기 이후 下落勢를 지속해 왔다. 非鐵金屬은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代替財 개발 등으로 소비가 저조한 반면, 外債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원 보유開途國들이 계속 공급을 확대하였고 더우기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되자 투기자본이 상당부분 금융시장으로 流出됨에 따라 價格下落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亞鉛, 銅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下落했으며 鉛, 알루미늄 등은 다소 하락세가 둔화되기도 했다.

곡물가격은 1984~85 곡물연도(84.7~85.6)에 全世界 곡물생산이 前年比 9.7%나 증가한 大豊을 기록한 뒤, 1985~86 년도에도 풍작이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FAO는 1985~86 년도의 곡물생산은 前年對比 1.3% 증가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원면과 생고무 역시 주요 생산국의 가격지지 정책에도 不拘하고 수요不振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중에 파운드當 2센트선까지 下落해서 68년 이후 최저가격을 기록했던 原糖은 주요 생산국가에서의 가뭄과 생산조절로 금년도 생산이 不振할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日本 등 일부 국가가 集中的으로 買入을 시작해서 7월 이후에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主要 國際商品價格 指標들은 5~7월 중에 月平均 1.9%씩 크게 下落했으며 8월 이후에는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그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자재 가격하락세의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主要 선진국의 경기가 下半期 및 來년에 다소 好轉되더라도 앞으로 달러貨가 계속 약세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國際經濟 여건은 來年에도 별로 好轉될 전망은 적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서 輸出지향적이며 對外依存度가 높은 한국 등 개도국의 경기전망도 크게 改善될 수는 없을 듯하다. ♣